

연중 제 7 주 일

기도서 P. 353

제1독서(이 사 43, 18-19, 21-22, 24b-25)

제2독서(고린후 1, 18-22)

복 음(마 르 2, 1-1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살아있는 믿음

서 용 복 신부

예수님이 가파르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군중이 문앞에까지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에 어떤 중풍병자를 메고 네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많은 인파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 고심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었다.

한국의 집 구조로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로 올라가는 구름다리(가)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구멍을 내기도 쉬웠다. 그래서 줄에 달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내어 완쾌를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 네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자

1. 이들의 믿음은 단순했다. 또한 철저한 믿음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느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매와 같지 않았고,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도 같지 않았다.

2. 이들의 믿음에는 사랑과 동정심이 있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기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를 메고 온 것이다.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불쌍한 환자를 완쾌하게 했다.

3. 이들의 믿음에는 협동정신이 있었다. 네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아무리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협동하는 정신이 없었다면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4. 이들의 믿음에는 항구성이 있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오기는 왔지만, 와서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 네사람이 포기하고 돌아서 간 것이 아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아 완쾌를 받았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난관이 반드시 가로막힐 때가 있다. 이와같은 난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

(남원 천주교회 주임신부)



팬인가, 주전 선수인가?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한다. 특히 어떤 부문(운동경기나 연극·영화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그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활약하는 어느 특정인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투수라면 누구, 타자에는 누구, 스트라이커에는 누구, 가수에는 누구, 빌런트에는 누구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그 누구가 등장하면 팬스레 즐거워고, 함성도 더 지르고, 발도 구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팬(fan)이라 한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연예인의 자리에 자기를 대신 세워놓기도 한다. 이러한 팬들 때문에 경기장이나 공연장은 열기를 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더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팬들은 더욱 열심히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찾는다. 피약벌도 좋고, 찬바람도 좋다. 그러다가 극성스런 팬들은 경기장에서 소주병을 던지는가 하면, 공연장에서는 속옷을 벗어 던지기도 한다. 아마 그들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의 지나친 표현이리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중의 하나이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이다. 운동장을 누비는 그리스도에게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을 보내는 팬이 머물러서는 안된다.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함께 뛰어 들어 골(문)을 향해 달려야 한다. 마지못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소극적인 구경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리스도편의 몇몇한 주전 선수로서 말이다.

또다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다. 의례적으로 이마에 재를 바를게 아니라, 구경꾼인가 팬인가 주전 선수인가를 반성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자.

숲 정 이 산책



물조심 하시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2년도 사순절 메시지 (요약)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루가 10, 29)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함께 나오는 귀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루가 10, 27)는 이 물음에 예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이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립피 2, 7~8)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실랑민과 함께 실랑민이 되지 못하며, 피난민과 함께 피난민이 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론의 제시나 선언, 항의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우리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길에 우리의 죄, 불의, 증오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아둔 까닭입니다.

이기심과 물질 및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전체의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와 보속으로 쇠신되어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외면하고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다가 가십시오.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물질뿐 아니라, 인간적이고 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지역교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회개와 보속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슬픈 길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제시되는 해방의 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의 면전에서 그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 40)

재의 수요일에 요한 바오로 2세

사순절(四旬節)이란?

「사순절」은 그리스도가 40일동안 광야에서 엄격하게 단식하며 제(齋)를 지킨 것을 표방해 이를 실천해온 데서 유래가 된다. 이때는 신자들에게 보속하며, 참회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교회에서는 「재의 수요일」이라 하며, 이날 교회는 신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으며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잔재로 보속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며, 인생무상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의 수요일은 단식과 금욕으로써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며 영혼을 걸터하게 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영신적 양육에 힘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써 주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동시에 주의 사랑의 정신을 특히 실천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도

—교구장님을 기다리며—

조 윤 수(아나다시아)

사랑자체인 주님, 당신은 넘치는 사랑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고, 이스라엘이 혼란을 거듭할 때마다 당신은 필요한 예언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당신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지도자를 보내시어 어지럽던 사회에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던 백성들을 당신께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훌륭한 지도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셨듯이 저희 교구에 당신이 원하시는 목자를 보내주시지요 그리하여 흠어진 양떼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주소서.

또한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 말씀과 뜻을 전하게 하시고 실천함으로써 당신을 더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우리들은 목자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자오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목자를 어서 보내주시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야훼여, 당신께 호소하오니, 어서 오소서. 소리높여 당신께 부르짖을 때 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 방향으로 받아주시고, 치켜든 손 저녁의 제물로 받아 주소서”(시편 141: 1~2)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매지여관 입구)
전화 ④989 ④4988

의료과학기술·쌍크·온수기

동남 의료 과학상사
백곰표 쌍크상사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전화 ③6900 야간②0496
김 낙 균(요셉)

☐사무소 이전안내

장소: 전주시 경원동 3가39
전북투자금융 건너편
세무사 오두석사무소 2층

사법서사 李泰榮
전화 ②9894 · ②1213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용)
남 베로니카

ECCLESIA

□ 「**윤정이**」(週報)가 증발됐다!

지난주 교구보 윤정이 482호가 모 기관의 제지로 전주시내 본당을 제외한 전 본당, 공소에 전달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겼다. 이유인즉 지난 연말 한국 정의 평화 위원회가 발표한「교회와 사회에 보내는 백서」를 요약 게재했다는 것.

터놓고 얘기하자면 새 시대 새 정부인줄 알았는데, 뜻밖에 「유신 잔재」의 소행일다 시 보는듯 해 몹시 씁쓸해진다.

□ **가톨릭 농민회** 대의원 총회

—교구 연합회 새 회장에 장 경암씨 피선—

교구내 47개 분회 600여 회원을 대표한 농민 대의원 52명이 지난 16일~17일 가톨릭 센터에 모여 진지한 분위기 속에 제7차 정기총회를 갖었다.

이들은 지난 한해동안 펼쳐온 사업과 결산을 함께 검토하고 보다 새롭고 알찬 새해에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임기를 마친 새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새 회장에 장 경암(고산본당)씨, 부회장에 신 태근(전 회장, 임실)씨를 각각 선출했다.

농민회의 새로운 출범에 힘찬 성원을 보내마지 않는다.

□ **순창 본당의** 견학신앙

순창본당에서는 보다 알찬 신앙생활을 체험케 하기 위해 1981년 1·2차 견학신앙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도원 방문과 여의도에서 있었던 조선교구 설정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제4차로 광주 예수 고난회 방문과 피정으로 알찬 견학신앙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5·6차 견학신앙으로 삼척 나환자촌 방문과 미리네 성지 순례를 예정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갈구하는 순창본당 신자들에게 갈채를 보내며, 이 견학신앙이 보다 값진 신앙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 **순교정신을** 산지식으로 전달한 책 「**성지(聖地)**」
평협에서 보급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여 순교의 피로 진리를 지켜온 우리의 교회사를 진 켈리 화보로 수록한 귀중한 책자가 나왔다. 본서는 전국 성지 및 유적지 197장소를 직접 현지답사하여 순교선열들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꾸민 것으로 모든 가정이나 권역 구입해 보길 권한다.

양장, 대형 진 켈리판, I·II권 정가—35,000원
보급처—교구 평협 및 사목국(☎ 5098)

◎ **알 림**

1. 「본당 공지사항」 화요일까지 도착토록 협조 바랍니다. (수요 인쇄, 목요 발송을 위해서).
2. 신자들의 투고는 가끔씩 교회 전례와 동향에 맞춰 200자 원고지 3~6매의 용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광고」로는 타지로 보내는 윤정이 발송료로 충당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현재 매당 3,000원)
—윤정이 편집실 드림—

윤정이(446) 김병오 

윤정이482호가 지방 본당에는 도착안되었어요?
편집실 

여기서는 들림없이 발송했는데... 

왜 못받았을까요?


쥬새끼가 들어갔을까요?


가나약국을
아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동남백화점 전주안과

가나약국

시청 우체국

가 나 약 국
(구 명보약국)

약사 활 의 옥(파로)
전화 ☎ 5652
전주시 중앙동 3가 73-1

건강을 드리는 회소식!!
◎土龍(진액·갈색·분말)
※ 종래의 토롱탕보다 농도와 효능이 탁월함
「뽕베리덕도 수도원 제조」
토롱센타(전북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 ☎ 5587번
황 수산나

주단·포묵(혼수·회갑옷)
감)도매상
자중 솜, 이불(밍크)카펜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 중앙로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 2513
한 철 재(비오)

◎ 이전개업
진명 유리상사
유리공사, 거울, 액자,
각종 선물용
◎ 교우님들께 특별봉사
※ 전화 주문 배송
관통로, 서울신탁은행앞
전화 ☎ 7467
손소부(아오스딩) 드림



1. 교구 수녀 연합회 성서연구 개강: 3월 1일부터 (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노충동 천주교회 (교육관)
2. 공소 지도자 훈련: 1·2·3지구 공소 대표, 22~25일, 가톨릭 센터
3.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일시-2월 25~28일, 장소-가톨릭센터, 회비-20,000원
4. 대학생 합창단 제 2기 단원모집: 대상-신자 및 예비신자, 접수장소-가톨릭 학생회관(전북대 앞)
접수일-방학중 매주 월(2월 22일~3월 1일) 오후 2시~5시
개학시 매주 월(3월 8일부터)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
5. 사진 전시회: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사진 당선작, 일시-3월 5일~8일, 장소-가톨릭센터
6.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3월 1일 오후 7시, 가톨릭센터 3층에서 있음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진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이사야서 43장~58장, 루가복음 5장~9장
1. 재의 수요일: 이날은 단식과 금육, 단식과 금육한 뜻을 28일 주일봉헌헌금에 합하여 봉헌해 주세요.
 2. M·B·W 공동체목상회: 25일 오후 1시30분~28일 가실분은 분당신부님과 면담 바랍니다
 3.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양로원
 4. 자모회 총회: 27일 오전 10시30분 강당 주일학교 졸업식-27일 오후 3시 강당
 5. 착한 사마리아인회: 24일(수) 오후 3시 회합실
 6. 예비자 봉헌: 공식미사중에 예비자 봉헌예식이 있음 예비자 안내하신 분은 예비자와 함께 예절 참석
 7. 어린이 영재: 26일(금) 어머니미사 후, 성당
 8. 병자방문: 23일(화) 병자를 모시고 계시는 분은 사부실이나 수녀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복사단 모집: 초·중·고등학교·복사를 희망하시는 학생은 나제노베와 수녀님과 면담하여 주세요
 10. 3월 대회(중학생): 2월 27일~3월 1일 (2박 3일, 서울 휘파라대 본부)
 11. 중학생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중학생 전용)
 12. 축! 밀알회 발족: 1982. 2. 17(수) 오후 9시 회장-김수철, 부회장-송동성, 총무-안장훈
- 지난주 봉헌금: 584,619원

(노충동)

전화 0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성원
사도 회장 이홍재

1. 가정방문 일정: 중노1동-23일(화), 24일(수), 인후동-22일(월)·25일(목), 유아동-26일(금), 오전 9시부터 방문합니다(구역장님의 협조 바람)
 2. 축! 환영: 최크리스티나 수녀 새로 오셨습니다
 3. 베소라 섬서각의: 23일(화) 저녁미사 후
 4. 금주 성경읽기: 창세기 전체
 5. 행재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제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7. 학생회 임원회의: 오늘 학생미사 후
 8. 주일학교 어린이 가정방문: 22일~27일
 9.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96,340원

(덕진)

전화 0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성열

1. 미사시간 변경: 주일 10시30분~10시로 변경 오전 6시, 오전 9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2.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3. 사순절동안 성모 대재지킴은 교구에 납부합니다
 4. 10시미사후 성모회 월례회: 할머니들 꼭 참석하세요
 5. 재의 수요일: 2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6. 예비자교리: 일반부녀-김보나수녀님 지도 주일 11시 노인반-채필라매다 지도 주일 11시 직장, 학생, 기타-보좌신부님 지도 수요일 저녁 7시
 7. 금주전례: 해설-김은식, 독서-정경진·박귀순 해설-이철중, 독서-이성환·유정순
- 지난주 봉헌금: 472,330원

(복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가정방문: 23일(화)-고사동 2번, 반회장-박석순, 반 지도자-강영남, 26일(금)-고사동3번, 반회장-교회구, 반 지도자-장동주, 27일(토)-완산동, 반 회장-은희영, 반 지도자-이충원
- ※ 가정방문 오후 2시부터, 반회합-저녁 8시

2.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사도회 임시회의: 오늘 저녁미사 후
 4. 재의 수요일: 단식과 금육을 지킵시다
 5. 미수교무금 속히 완납 바랍니다
 6. 학생회: 신입생 환영회-28일 학생미사 후
 7. 주일학교 졸업식: 오늘 어린이미사
 8. 차주전례: 해설-김순정, 독서-①장기연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432,300원

(서학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구

1.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2. 재의 수요일: 저녁 7시미사중 재의예절 있습니다
 3. 중·고생 연수회: 24일부터 26일까지 주간-선교부(김낙완·신창교): 협조-성심부녀회
 4. 사제양성후원회 발족: 회장-박장준, 부회장-조동근, 총무-장기호, 위원-한형수·김나설·정만성·김재열·김찬기
 5. 차주 전례담당: 독서-①김나설 ②장기호
- 지난주 봉헌금: 238,780원 교무금: 152,000원

(술정리)

전화 0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0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성모회·요안회 월례회: 21일 주일 공식미사 후
 2. 유치원 소식: 술정리 유치원 2학년 중학으로 추가원아 모집하오니 선착순으로 접수 바랍니다
 4. 사순절 금육과 단식을 지킵시다
 5. 미사시간 지킵시다: 성경과 기도서를 지참합시다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송용호·백시현, 기도-박대규
 7. 미사참례자 안내: 제3조-황화순·유봉례·오귀례·오옥동·유희자·반경자
- 지난주 봉헌금: 404,420원

(전동)

전화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범영
사무 03222번 보좌 신부 박준우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표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재의 수요일: 24일(수) 단식과 금육
 4. 주일학교 어머니회: 24일 오전 11시 사제관 2층에서
 5. 어머니성가대: 신축기금마련 사진판매, 울진1대회사
 6. 구역회합: 매월 4주 화요일 많은 교우 참석있으시길
 7. 학생회: 21일 오후 2시 첫 임원회, 사제관 2층에서
 8. 젊은이 피정: 3월 7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9.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
 10. 사비오회 발족: 주일 보미사단 오늘 오후 4시 사제관
 11.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이현재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이우철, 독서-①이영태 ②안득수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진홍
- 지난주 봉헌금: 527,050원

(파티마)

전화 0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봉사분과위원회: 오늘밤 미사후에 있습니다. 새 봉사분과위원장 조윤희(베드로)씨 수고하세요
 2. 교육분과위원회: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3. 24일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작년엔 가자고 간 성자 화요일까지 사무실에 가지고 오세요. 사순절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4. 다음주 유아세례 있습니다: 3시30분 미사후
 5. 사순절동안 매일 미사참례를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175,065원 교무금: 120,000원

조선교구설정 150주년기념

제1회

가톨릭사진 공모전

—附·여의도 신앙대회 기록사진—



일시: 1982년 3월 5일~8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3층

주최: 한국가톨릭사진가협회

주관: 천주교 전주교구 4지구

초청의 말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을 맞아

제1회 「가톨릭 전국 사진공모전」과 「여의도 신앙대회」 기록 사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사진가 협회가 마련한 이 사진 공모전은 가톨릭의 발자취와 오늘의 현황을 한눈으로 읽을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베풀어졌던 신앙대회때 서울 상공에 나타난<십자가>의 촬영과 대규모 행사의 기록사진등은 한국 가톨릭사의 영광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진가 협회의 출범과 함께 전주전시를 진심으로 축하 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협조를 바라며 이땅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내리시기를 기원 합니다.

1982년 3월 일

천주교 전주교구 4지구

지구장 김 종 택 신부

